

같이 하자고 졸랐더니 그때부터 남편도 새벽에 일어나 몸을 청결히 하며 3배를 시작으로 예불을 모시고, 아침에 가계문을 열고, 일반신문 대신 <현대불교신문>을 읽으며 틈틈히 경전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불교대학의 강좌는 일주일에 두번이지만 세탁업을 하면서 내 시간을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과 남편의 보살핌으로 2년을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졸업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3월 불교대학원 모집요강은 가져다 놓았으나 도저히 다닐 엄두를 못내고 있을 때 남편이 나 몰래 입학금을 내주며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고맙기만

했다. 하루는 불교방송에서 4박5일 해남 대홍사 수련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오라고 배려도 해주고 삼천 배 참회기도도 허락해 주었다. 나의 신생활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남편에게 나도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항상 부처님처럼 모시기로 마음 먹었다. 대학원 졸업여행 성지순례가 일요일이어서 남해 보리암에 가서 참배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관세음보살상을 무심코 찍었다. 필름을 현상하려고 사진관에 갔더니, 잘 찍었다며 어느 유명한 작가의 사진이냐고 물었다. 그때부터 이 사진을 확대하고 코팅해서 액자에 넣어 붙자 가정마다 나누어 주었더니 더욱더 많은 불자들의 신심이 두터워졌다.

그뒤 큰스님 법어나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테이프 등을 복사해 나누어 주며 신생활을 했다. 우리가 세탁업을 시작한지 어언 30년, 다른 업소보다 고객이 많은 탓인지 10여년 전부터 남편의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며 어깨 통증이 심하고, 손등에는 발알만한 혹이 생겼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약, 양약, 단방약을 다 썼어도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 의사선생님이 어깨를 쉬어주며 적당한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깨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30여년 세탁업을 하다보니 고객이 엄청 많아 도저히 쉬 수가 없어 세탁업을 그만두기로 했다. 막상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민하다가 1996년 4월 24일 일요일 관음재일

남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두손 모아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를 몇번이고 불렀다. 절에 다닌다고 이혼까지 강요했던 남편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 체험까지 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편의 당뇨병도 좋아져 병원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정상 혈당, 정상 혈압으로 건강지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조상님의 은덕이 아니며 관세음보살님 가피력이 아니겠는가!

내 아들은 내과의사지만 아버지가 악을 복을 앓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몇번이고 의심하다가 지금은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마음 속에 모시면서 환자를 진찰한다고 한다.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종교는 자유라며 불교는 미신을 믿는다고 시댁의 9남매 온가족이 싫어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불자가 되었다. 93세 되신 친정아버님도 관세음보살님 사진 앞에 앉아서 열물로 하루를 마치시며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 아들들은 불자가정과 인연을 맺어 다복하게 살고 있으며, 교사인 막내딸은 아침은 못먹어도 예불을 꼭 올리고 출근하는 모습 등을 보니 내일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남편 건강 되찾고 9남매 모두 불자로 후손에게 정법 물려주는 전법사 되고파



그림 · 문병성

날 남편에게 절에 기도를 가자고 했다. 그날따라 비가 와 남편은 거사들이 거의 오지 않을것 같으니 싫다고 집 밖을 나섰다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가며 간절한 소원이라며 손을 잡고 애원을 했다. 하루종일 이슬비는 오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관음경근을 종일 하다가 저녁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 향림사 큰스님께서 남편에게 무슨 보따리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정심을 먹으면서 꿈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수저를 들다 말고 "참 이상하다. 나도 어제밤 꿈에 큰스님이 오셨는데..." 하는 것이다.

남편 꿈속에서 "스님, 저는 이 팔을 도저히 못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하자 스님께서 "오른손 옷소매를 걷어 올려라" 하시고는 하얀 칼로 오른손 팔꿈치 안쪽으로 20cm 정도 수술을 하시더니 핀셋으로 15cm 정도 되는 하얀 힘줄같은 것을 꺼내시며 "다시는 안 아플거야" 하시면서 손으로 간져주시고는 사라지셨다는 것이다. 남편은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몇번이고 만져보아도 정말 아프지 않았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다. 실제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워 못견디던 남편의 어깨가 안 아프다니... 그 손등의 혹은 어디갔나?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가 보다...
정심을 먹다말고 가게로 나와 우리 집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며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심사평

◇구립 28일 한마음사랑방에서 본심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

24점 본심... 이타행 · 자기수행 내용 많아

총 71점중 예선을 통과한 24점의 작품이 본심 심사에 올랐다. 예년에 비해 참가 작품수는 줄었으나 내용의 감동성 등 질적으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보살행이나 보시행을 실천하는 삶의 현상이 많이 담겨있었다. 실행형태도 단순한 기록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자기수행의 교리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의 불교실행의 현상이고, 바람직한 양상으로 본다. 이는 그동안 사찰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이 불을 이루고 정기법회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에서 안타까운 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상을 선정하면서 실천의 측면과 절실한 삶의 감동성을 두고 오랜동안 숙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문학회가 아니기때문에 감동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작품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끝맺어 '부처님 가피' 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상태에서 마무리되어 버려, 새로운 삶의 문제가 제시되는 암시성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다만, 철저한 체험이나 새희망의 결실함이 담긴 작품은 구성이나 문장력에서 결핍됐고 문장력이 우수한 작품은 체험의 깊이가 덜해 심사하는 과정

△고은시인(본사 논설위원) △법산스님(본사 논설위원) △동국대 불교대학장) △김광삼 본사이사장 △최정희 본사편집국장

가족애와 하심 일깨운 스님께 감사

당선소감

대상(유마상) 류화순



저보다 더 열심히 수행정진 하시며 간절한 체험을 하신 법우님들이 많이 계실텐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이 큰 상을 주신다니 송구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90을 넘기신 양가 부모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피력을 주신 부처님께 두손 모아 감사를 올립니다. 하심과 인과의 도리를 깨우쳐 주신 향림사 조실 천운

큰스님께 항상 감사 드리며 헌신적인 사랑과 자비로운 보살핌으로 짧지않은 시간들을 열어서 묵묵히 지켜주시는 우리집 거사님과 가족 그리고 인연 닿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화주하며 전법하는 불자 신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행정진하며 포교하는 불자가 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나무지장보살님처럼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행을 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謹 · 賀 · 新 · 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勤賀新年 韓國佛教 法華宗

종정 김혜윤

- | | |
|----------|-------|
| 원로원장 | 박종화 |
| 총무원장 | 김혜민 |
| 종회의장 | 김혜명 |
| 감찰원장 | 박세장 |
| 서울교구총무원장 | 김영장 |
| 경기교구총무원장 | 박옥산 |
| 충남교구총무원장 | 김병준 |
| 충북교구총무원장 | 박웅 |
| 경북교구총무원장 | 김정호 |
| 부경교구총무원장 | 서리김묘연 |
| 강원교구총무원장 | 서리이범연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학암당 홍혜암

종정사서실장 석도성

- | | |
|--------|-----|
| 승정원장대행 | 육대월 |
| 총무원장 | 석마정 |
| 원장사서실장 | 석정광 |
| 부원장 | 석덕치 |
| 종회의장 | 석죽산 |
| 부위원장 | 석유진 |
| 사정원장서리 | 석이혜 |
| 포교원장 | 석진장 |
| 교육원장 | 석석장 |
| 문화원장 | 석해공 |
| 부원장 | 석해공 |
| 수선원장 | 석해공 |

- | | | | |
|------|-----|------|------|
| 사무총장 | 석청강 | 규정부장 | 석범인 |
| 총무부장 | 양벽암 | 홍보부장 | 조범운성 |
| 사회부장 | 홍법진 | 동원부장 | 조마인 |
| 재무부장 | 석마월 | 섭외부장 | 안응암 |

국제불교포교사대학
국제권권법술총연맹
회장 김중운

- ▶ 총무원: 경기도 이천시 울면 월포리 80
전화 : 0336)643-8254, 0554/
FAX : 0336)643-8254
- ▶ 서울사무소: 광진구 중곡2동 124-7
전화 : 총무원장(직) 02)456-1963
FAX : 02)447-5291

대한불교 법성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서덕암

- | | |
|------|-------|
| 원로원장 | 법주박영식 |
| 총무원장 | 덕암서장근 |
| 종회의장 | 혜승고대환 |
| 교육원장 | 만원이홍중 |
| 포교원장 | 재령김선중 |
| 총무부장 | 혜운안병엽 |
| 교무부장 | 혜선류지형 |
| 포교부장 | 보현조보현 |
| 규정부장 | 혜운김승만 |
| 재무부장 | 옥천유우순 |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1-14호
TEL : 02)747-2202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

종정 한구하

의장 정희수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희수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6호
TEL : 02)730-0798-9 FAX : 02)722-3205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35-5 (중앙빌딩 503호)
TEL : 02)745-1590 FAX : 02)742-1590